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제27차, 기도 에 대한 비유 , 루가복음 17:20-18:17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7, 기도에 대한 우화, 루가 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17절까지입니다

. 성경적 치유 학습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대화에서 저는 10명의 나병환자를 고친 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루가가 그의 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살펴봅니다.

이 특정 강의는 기도, 특히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어떻게 천천히 마무리되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가의 서사는 이 여정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안내하고 매우 느리게 진행합니다.

19장 중반에 이르면 누가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말하고, 수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가올 왕국의 출현이라는 주제와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요구되는 경건의 형태에 대한 헌신을 굳건하고 강하게 유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말한 구체적인 비유에 주목하세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인지 묻자,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관련하여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지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의 도래에 대해 생각할 때 구체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의 영토 회복, 평화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곳, 인자가 거하는 곳,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체제를 지배하지 않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그들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다가오는 왕, 메시아를 다루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주의를 끌만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생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무언가는, 그들이 거기서 묻는 모든 것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는 왕국의 시간이 그들이 왕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온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때 온다.

하나님의 통치는 메시아가 포로들, 병들고 지친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함으로써 온다.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은 희망이 희망 없는 자들에게 회복될 때 온다.

이 강의 시리즈의 앞부분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나사렛 선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 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특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기대에 따라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그들의 면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것과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인데, 마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질문이 그들이 제기한 잘못된 질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가올 왕국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자에 대해 뭔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알다시피, 만약 당신이 왕, 왕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증하는 일과 행위를 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할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주의를 제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인간의 아들에게 오는 왕국에 대한 주제로 결길로 가며. 그리고 나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아들의 날 중 하나를 보고 싶어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 보라, 저기 보라, 여기 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비추는 것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니 마치 노아의 날과 같았느니라 .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가 닥쳐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겠느냐? 그 날에 집에 물건을 가득 채워 둔 자는 내려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밤에는 침대 두 개가 한 침대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빼앗기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갈아대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지고 다른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어디, 어디 주님? 그는 시체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말했고,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행동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끌릴 것이다.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에서 설명하신 대로 인자의 오심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구절에서 여섯 가지를 간단히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자는 유대 종말 문학에서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 즉 그들이 이해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4절쯤에서 제자들이 인자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는 인자를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배척은 인자의 사역을 상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고통과 인간의 거부로부터 면역이 있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셋째, 인자의 임함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물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들이 기대하는 시간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암시하는 것은 아마도 인자의 도래와 에스카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에는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기억해 낼 수 있는 선례가 있고, 만약 그들이 이해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인자의 도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라.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갑자기 왔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은 영원히 즐겁고 재미있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의 배경을 들을 수 있다면요. 그가 인자의 오심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유대 전통의 또 다른 초기 선례인 롯의 시대를 사용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이 왔습니다. 놀라움은 유향과 불의 형태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서,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자의 오심을 향해 나아가는 유대인이라면, 그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이 그 때일 수 있고, 너무나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인자의 오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들은 매우,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는 고통, 거부, 끊임없는 기대의 필요성, 그리고 항상 준비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도의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함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하늘 아버지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보세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읽어주는 좋은 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당신은 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제 회중에게 기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와,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시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생.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세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어 건축가의 구성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이며,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서 얼마나 끈기 있게 "나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계속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 관심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화. 이 두 가지 우화를 살펴보면,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를 위한 올바른 자세의 우화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위한 올바른 자세에 대한 비유. PPPP라고 할까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 자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누가가 이 두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우리의 주의를 몇 가지 사항으로 이끅니다.

첫째, 이 두 비유는 오직 루가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주도로 기도를 가르치실 루가복음 11장과는 다릅니다. 이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루가복음이 16장에서 전개해 온 내용, 즉 버림받은 자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과부와 세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정의의 일상 생활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건함의 최고 표현이 일어나야 하는 성전의 맥락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전개될 내용을 요약한다면, 화면에 있는 이미지에 넣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 때 기도의 자세로서 한 가지 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사람들이 다가올 왕국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끌어낼 것입니다. 준비에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태도에서 기르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특성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가르침은 이 두 영역을 매우, 매우 명확하게 포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기와 상대방 에 대한 태도에서 겸손함을 이해합니다 . 첫 번째 비유, 즉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고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과부가 그에게 계속 와서, “내 적대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거절했지만, 나중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괴롭히니, 그녀에게 정의를 베풀어 그녀가 나를 놓지 못하게 하고,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속히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인자의 오심 모티브를 기억하세요: 그는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재판관과 과부의 자세와 성격을 저울에 올려놓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풀어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비유의 끝은, 인자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자의 오심인 인자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끈기가 보상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의 모델로 여겨지는 재판관과 과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판사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부가 전하는 내용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우화에서 판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판사입니다.

발음하기 위해 적어야 할 영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역할은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판사라면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경건함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의 판사는 신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덜 신경 썼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메아리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비유에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판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분명히 그는 요점을 놓쳤다.

그가 인류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크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그가 대중의 수치심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 거부, 나쁜 사회적 인식 또는 나쁜 대중 이미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덜 신경 씁니다.

이 판사가 불의하고 불경건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비유에서 그의 반항을 주목하십시오. 보다시피, 그는 법을 따를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판사는 단순히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를 집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배경으로서 우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처럼, 사회의 취약 계층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과부 등.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는 나그네와 고아에게 공의를 굽히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그것이 그러한 법 중 하나이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등 이방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의를 왜곡하는 자는 누구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재판관이 하지 않는 일이다. 시편 146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지키시고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시키시느니라.

판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과부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 하는 일의 기본 원칙이 거부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판사의 마음 상태가 작용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불의의 감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 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

그리고 당신의 끈기 있는 기도가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보통 공개 강의를 참석합니다. 저는 외경이나 가짜 시적 책 등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가져가면 내 교실에서도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Syrup이라는 위경책을 아시죠. 35, 16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정의를 등불처럼 밝힐 것이다.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이 비유는 나에게서 꽤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덜 돌보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중 일부를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판사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예수님의 초점이 과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여기서 과부를 묘사하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왜 과부를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이 특정 기록에서 과부를 보면, 과부는 판사의 관할권의 합법적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과부가 그 나라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판사가 말할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건은 내 관할권 밖입니다. 당신은 또한 이 과부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호의가 아닙니다. 과부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은 공정한 판단. 혹은 공정한 판결.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는 비유에서 판사가 경건함이나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저 기꺼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과부의 끈기는 실제로 판사에게 많은 문제를 줄 것입니다. 판사는 이 과부를 돌보지 않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에 나오는 기술적인 단어들.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당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당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상대방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정당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일 수도 있고, 그를 법정에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변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느님은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때때로 그분은 듣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지연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여러분은 사람들이 정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 판사가 하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운 곳이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를 집행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

여러분 중 일부는 불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비기독교인의 손에 불의를 당할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에 적대적인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불의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하고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불의한 재판관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미지를 정의로운 신, 기꺼이 하시는 신, 돌보시는 신과 대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 끈기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격려합니다.

신이 들으실 것입니다. 신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신이 당신에게 정의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듣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 자세는 기도에서 중요한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은 기도에 응답할 적절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답이라 할지라도 침묵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은 여전히 거기에 계실 것이고, 신은 정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발, 당신 주변 어디에서나 정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정의로운 신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사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사회는 불의를 허용하는 온갖 상황에 휩싸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끈기 있게 노력하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오래 지체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그는 속히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판관처럼 기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는 믿음을 찾을까요? 인자가 올 때, 그 단어를 의역하거나 다른 단어로 번역하겠습니까. 그는 당신에게서 신뢰를 찾을까요? 인자가 올 때, 그는 당신이 충실한 것을 찾을까요? 당신이 그와 함께 서서 걸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것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바리새인, 세리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죄인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이 세리보다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멀리 서 있는 세리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나 낮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비유에서 바리새인을 언급하신 유일한 비유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돌아다니는 바리새인이라면, 아니면 적어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바리새인이라면, 만약 당신이 돌아다니는 바리새인이라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 바리새인들아, 이게 너희가 행동하는 방식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 속의

인물을 보면, 이것은 그가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해 온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루크의 초상화를 볼 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좋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초상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거나 보여서는 안 될 독선을 비판하는 방식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자세를 주목하세요.

그는 신에 대해 말했지만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성에 집착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정당화. 하지만 그는 성전에 섰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장소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사회적 지위가 누구의 것인지 주장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의 본질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리의 자세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겸손해서 문화적으로 신을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기서 잠시 멈춰서 몇 가지 문화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양 국가에 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시리즈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몇 가지 문화적 문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진실을 말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것에 대해 매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법정에서 유죄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판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나 배심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나 고발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문화권과는 매우,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전달하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위협하려는 욕구를 암시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찰을 한 후, 예수의 우화는 사람을 진정한 겸손으로 보지 않는 맥락에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부끄러움의 감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와 현재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적절한 자세는 머리를 숙이고, 엄청난 당혹감과 부끄러움, 진정한 후회의 감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고, 실제로 멀리 서 있는 다른 자세는 그가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감각을 더욱 강조합니다. 원한다면, 그는 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 즉 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시피,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선다. 그는 신에게 제대로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보라, 눈을 뜨고, 그는 세리도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매우 매우 거만한 자세입니다. 매우 매우 부적절한 자세입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요. 그는 마치 그것이 그에게 점수를 따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건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데,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수입이나 제가 얻는 모든 것을 십일조로 바친다는 걸 아십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세리도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도 의롭다고 여겨져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리십시오.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보여주는 정신은 비유의 마지막 두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는 모두 낮아지고 모든 사람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입니다. 루크 티모시 존슨의 말에 따르면, 루크에게 기도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경건함에 대한 선택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행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방식은 그 관계를 드러낸다.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가 그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았는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의 웹 제작자들이 얼마나 시적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과부로서의 끈기와 세리로서의 겸손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이들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비유에 이어서 누가는, 그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만져 달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수와 어린이의 관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 문제입니다. 문화적 대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화를 읽을 때 가정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나 유아들은 아이들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사회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당신은 매우, 매우 취약한 집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인식됩니다. 의미 있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아이들은 농장이 있는 가족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기여하는 데 의미 있는 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는 매우,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나을 온갖 질병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이었습니다. 부모가 때때로 아이들을 장로와 랍비에게 데려가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거의, 야훼의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갖 종류의 아이들을 만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환대에 상호성이 있는 문화에서, 당신이 받는 사람들은 보통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그들은 또한 때때로 하찮은 아이들이 아니라 고귀한 지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그들을 만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이들을 가치 없고 원치 않는 존재로 여겼다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예수에게서 쫓아냈습니다. 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틀렸는지요. 누가의 틀에서 복음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그리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루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이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서 보고 싶어하시는 것 이상으로 판단을 행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 자신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과부처럼 합당하지 않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유아들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른 공관복음서가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우리이고, 예수께 데려온 유아들입니다. 이 누가의 담화와 다른 담화는 아마도 이 텍스트에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본문에는 그런 해석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삼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분의 제자들조차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유아와 어린이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인자의 오심에 대한 구절과 가르침을 상기시켜 드렸고, 그 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언급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두 가지 비유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끈기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의 침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라고 격려합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가져와야 할 겸손한 태도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특정 강의에서 살펴보는 마지막 부분 또는 구절은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데려와서 아마도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연결됩니다.

이 특정 강의에서 모델로 등장한 세 가지 핵심 인물을 주목하세요. 한 명은 과부, 즉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 즉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고, 다른 한 명은 아이, 즉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참여자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추종자로 의도적으로 기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상처받은 세상을 만지는 데 하나님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끈기, 기도, 겸손으로 그분을 찾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제가 일어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계속 가르치셨고, 당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가져다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과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부든 세리든 아이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7번째 세션, 기도에 대한 비유, 루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17절까지입니다.